

## 민사소송법

###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교통사고의 피해자 甲과 乙은 가해자 丙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甲만이 丙을 상대로 기왕 치료비 2,000만원과 향후 5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총 50점)

(단, 다음 각 설문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상호 무관한 것임)

- 1) 원고 甲이 이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乙은 원고 甲을 돕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하였다. 이 참가의 적법성 여부와 법원의 조치를 논하라. (25점)
- 2) 원고 甲과 피고 丙은 변론기일에 법원의 권유에 따라 기왕 치료비 1,500만원과 향후 5년 동안 치료비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다. 화해 조서가 작성되어 소송이 종료된 후 甲은 丙이 자신을 협박하여 할 수 없이 화해한 것이었다며, 이를 취소하고 새롭게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소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라. (25점)

제 2 문.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총 30점)

(단, 다음 각 설문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상호 무관한 것임)

- 1) 乙이 甲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돈을 빌렸으나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한다. 그런데 원고 甲의 주장은 물론, 피고 乙의 이 모든 주장도 최종적으로 진위불명(眞僞不明)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각기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15점)
- 2) 乙이 처음에는 빌린 돈 모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그 돈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진술의 번복이 가능한 것인지 논하라. (15점)

제 3 문. 원고 甲의 피고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 甲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심리결과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